소망의 여인들

출혈과 휴식 / 당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

김상순 :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은 돈을 빌려주면서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살 한 근을 떼어 내주어야 한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간 사람은 약속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합니다. 이제 그는 가슴에 있는 살 한근을 떼어내야 합니다. 각서 때문에 꼼짝 없이 죽게 되었을 때 재판정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의 변호사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약속대로 살 한 근을 떼어가십시오. 그러나 오로지 살만 떼어가야지 이 사람이 피 한방울이라도 흘릴 경우 당신이 죽게 될 것입니다.'

Theme In

이문경 : 소망의 여인들 청취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복음을 전하는 소망의 여인들입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나머지 : 안녕하세요.

이문경 : 소망의 여인들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김상순 : 혹시 세익스피어의 희곡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문경 : 네, 고등학교 때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의 희곡 중 하나인 베니스의 상인에 샤일록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오지요? 그는 그 작품의 다른 인물들과는 다르게 다른 문화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들은 서로 이해할 수 없었고 그에게 많은 편견이 있었습니다.

김상순 : 그렇습니다. 오늘 앞서서 제가 소개한 줄거리 기억나시죠? 재판관이 샤일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 이제 살을 떼어 내십시오. 그러나 말씀 드린대로 살만 떼어내야지 저 사람의 몸에서 피 한방울이라도 흘릴 경우 당신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샤일록이 절망감에 빠져서 소리칩니다. "어떻게 몸의 살을 벨 때 피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김정라 : 샤일록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물론 돈 때문에 남의 생명을 해하려는 것은 죄악이지만 생각지도 못한 판결 때문에 놀랐을 샤일록이 상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겉으로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같은 게 있지요? 우리는 모두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몸을 만드셨어요. 우리의 생김새는 달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피와 손과 발, 심장, 폐를 모두 만들어주셨지요.

김상순 : 그렇습니다. 오늘 사람이 피를 흘릴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 보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다쳤을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Bridge Music 1

이문경 : 여러분은 지금 소망의 여인들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는 누군가가 피를 흘릴 때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 볼거에요.

김상순 :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는 것을 보면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아마 아무도 그런 장면은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이문경 : 너무 걱정마세요. 오늘 우리는 심한 상처가 아니라 아주 작은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김상순 : 그 상처가 어떤지에 따라 다르겠지요? 단순히 베인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이 과일을 자르고 있습니다. 이런! 칼이 미끄러져서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재빠르게 그 부분을 누르고 상처에 얼음을 조금 올리세요. 출혈을 멈추는데 도움이 될 거에요. 만약 혈관 표면만 베였다면 피가 천천히 나올 거에요. 그러나 만약에 피가 뿜어져 나오는 게 보인다면 동맥이 절단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즉시 응급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문경 : 동맥과 정맥의 차이가 뭔가요? 둘 다 몸 전체에서 피를 운반하지요? 그런가요?

김상순 : 맞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동맥은 심장이 뿜는 산소가 가득한 혈액을 신체에 전달하는 혈관이고, 정맥은 산소를 재생하기 위해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 가는 혈관입니다. 동맥의 혈액은 밝은 빨간색이고 정맥의 혈액은 그보다는 더 어둡습니다.

이문경: 만약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김상순: 따뜻한 비눗물로 씻으세요. 만약 화끈거리는 통증이 없다면 다시 한 번 부위를 누르세요. 출혈이 멈추었다면 부위에 소독된 연고를 바르고 깨끗한 천으로 꽉 감싸세요. 긁힌 자국에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이문경 : 지금 단순히 베였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신거죠? 그렇다면 만약 누군가 무언가에 찔렸다면요?

김상순 : 찔린 상처는 더 심각합니다. 베거나 긁힌 상처보다 더 많은 피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 발톱을 밟았어요. 피부와 조직들이 발톱을 밀어서 발바닥으로 세균을 옮겨갑니다. 이럴 땐 즉시 응급처치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주사기 같은 것으로 상처를 깊숙히 씻어내야해요. 물이 상처 안으로 깊숙히 들어가면서 먼지들을 나오게 해줘야 합니다.

이문경 : 우리 몸이 스스로 감염된 부위를 치료할수 있나요?

김상순 :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염과 질병에 맞서 싸울수 있는 훌륭한 면역 체계를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부상을 입었을때 그것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만약 찔린 상처가 깨끗이 소독되지 않으면 피부가 아물면서 세균이 안에 갇히게 될 거에요. 그러면 발이 오염될 것이고, 몸이 박테리아와 싸우려고 하면서 고름으로 가득찰 거에요. 그러니 상처를 먼저 치료하는게 우선입니다.

이문경 : 그러니까 뭔가에 찔렸을때 의사선생님께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군요?

김상순 : 네, 그게 좋습니다.

이문경 : 그럼 조금 더 심각하게 찔린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김상순 : 찔린 상처가 몸에 큰 혈관이 있는 신체나 팔에 발생한다면 이건 더욱 심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내출혈을 야기시키기 때문이죠.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찌른 그 물건을 제거하려 하지마세요.

이문경 : 어머 왜요?

김상순 : 찌른 그 물건을 그대로 두는 이유는 그 물건이 지혈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만약 가능하다면 그 부분에 붕대를 감고 바로 병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느 날 건설현장책임자가 들어왔어요. 그의 직원은 큰 건물을 짓고 있었어요. 그 책임자가 공사장을 걷고 있을 때 위에서 30 센티미터가 되는 철근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그 철근 조각은 그의 안전모를 뚫고 머리에 박혔습니다.

이문경 : 어머!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끔찍해요.

김상순 : 그런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의 머리에서 철근 조각을 제거하지 않고 부상자의 머리를 수건으로 두르고 곧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놀랍게도 그는 직접 걸어서 병원에 들어갔어요.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에요. 만약 그들이 박힌 철근 조각을 빼려했다면 아마 죽었을 지도 몰라요.

이문경 : 아,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그런데요, 누군가 심각하게 다쳤는데 피가 멈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상순 : 피가 멈추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죽게 될 겁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를 멈추게 하는 겁니다. 출혈이 있는 곳에 직접 압력을 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천이나 맨손으로 출혈이 있는 부분을 단단히 눌러주세요. 그러나 너무 세게는 누르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되지않고 그 부분으로 혈액이 가지 않기 때문이죠. 산소가 충분하지 않아 조직이 죽게 될 수도 있어요.

이문경 :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정보에요. 만약 뼈가 부러졌는데 그 뼈가 살을 통해 튀어 나왔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김상순 : 먼저와 마찬가지로 압력을 가해 출혈을 멈추게 하세요. 그리고 부목을 대세요.

이문경 : 부목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상순: 부목은 관절이나 부러진 뼈가 움직이지 않게 사용하는 단단한 막대기 또는 판이에요. 부러진 팔이나 다리에 부목을 사용하려면 늘어나지 않는 단단한 천이나 밧줄을 사용하세요. 이것은 부러진 다리나 팔이 더 이상의 부상이 없게 똑바로 유지시켜줍니다.

이문경 :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잘 기억하셔서 응급상황시 놀라지 마시고 들으신대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

찬양

이문경 : 여러분은 지금 소망의 여인들을 듣고 계십니다.

김정라 : 제가 어렸을때 뾰족한 조개들 더미에 넘어졌던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무릎이 까졌지만 그보다 더 아팠던 것은 제 손에 작지만 깊게 난 상처였어요. 피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정말 무서웠어요. 엄마가 급히 달려와 제 상처를 보셨어요. 저는 병원에 가서 상처를 꿔매야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깨끗한 비눗물로 제 손을 씻어주고 천으로 눌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출혈이 멈췄어요. 그때 저는 손의 상처보다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제 눈물을 닦아주시며 괜찮다고 절 다독여 주셨어요. 저는 아무일 없다는 듯이 다시 밖으로 나가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제 제가 엄마가 됐을 때, 그때 엄마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엄마로써 아이가 피가나는 걸 보는 것은 너무 힘들고 두렵지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다칠 때마다 출혈을 멈추게 하고 상처를 깨끗이 한 다음, 안아주고 진정시켜 다시 놀게 해주었습니다.

이문경 : 오늘 배우신대로 잘 하셨네요!

김정라 : 그렇지요? 저도 저의 어머니로부터 배운 거랍니다. 저는 아이들의 상처를 치료해 줄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제가 다쳤을때 저를 일으켜주세요. 제가 고통속에 있거나 두렵고 슬플 때, 저의 상처를 치료해주시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후에 전 그분을 위해 살려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이문경 :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잘 아신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보다 더 우리를 아시는 것 같습니다.

김정라 : 그렇지요? 심지어 제가 모를 때도 저의 감정을 이해하시고 제 생각을 아시고 영적으로 제가 어떻게 느끼는 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정말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에 있는 기도의 한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 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속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는 우리가 두려울 때도 아십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외로움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감정들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다.

이문경 :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팔로 안고 계시며 그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우리를 안심시켜 주십니다. 엄마가 우는 아이를 달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하십니다. 우리가 상처와 슬픔을 그에게 말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세상으로 나갈 때 함께 하신다고 우리를 안심시켜 주십니다.

Bridge Music 2

이문경 : 여러분은 지금 소망의 여인들을 듣고 계십니다.

김정라 : 오늘 상처와 출혈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피흘리시고 죽으셨는지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셨어요.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믿기에 어렵지만 사실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때문에 대신 죽임 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마침내 예수님이 그의 목적을 이루실 날이 다가왔어요. 예수님은 끔찍한 방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의 등은 채찍을 맞아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억지로 씌운 가시면류관으로 인해 그의 이마에 깊은 상처가 났지요. 그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많은 군중들을 지나 언덕으로 가셨어요. 그의 손과 발은 큰 못들로 인해 뚫어졌습니다. 그의 옆구리는 창에 찔렸고 물과 피가 흘러 나왔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그는 돌아가실 때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가 전혀 이해할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소리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 27:46)

이문경 :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모든 사람을 향한 그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그는 어떠한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김정라 : 이게 그가 하신 일입니다. 그는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요한 10:17-18)

이문경 : 만약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금 저희들과 함께 기도해주세요.

김정라 :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돌보심도 압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기 때문에 저의 고통과 슬픔도 이해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저에 대한 모든 걸 아십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원해요.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매일 저와 함께 계시다는것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문경 : 소망의 여인들 이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나머지 : 안녕히 계세요.